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더 넓은 무대 향한 성공적인 발돋움

소프트테니스부·양궁부·유도부 창단·운영 중
2023년 전국체전·아시안게임 입상 등 맹활약

순천시는 1994년 소프트테니스부의 창단을 시작으로 1997년 양궁부, 2017년 유도부를 각각 창단하여 총 3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해오고 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총감독을 필두로 소프트테니스부 9명, 양궁부 4명, 유도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29개의 대회에 출전하여 총 33개(금 11, 은 6, 동 22)의 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국가대표 선수와 감독을 배출하는 등 순천시 전문체육의 저력을 보여줬다.

2023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에는 유도부 5명이 출전하여 전원 메달을 획득하였고 김지정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을 확정지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양궁 여자일반부 단체전 우승, 소프트테니스 남자일반부 단체전 3위, 유도 여자일반부 -63kg급 1위, -52kg와 +78kg급에서 3위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선수들은 전국체전 행사의 꽃인 성화봉송과 홍보영상 촬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 홍보에 발 벗고 나서기도 하였다.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난해 대회 입상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유도 국가대표 김지정 선수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첫 출전한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거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어 모두의 응원과 격려를 받았다.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여 '삭발투혼'으로 이름을 알린 유도부 양서우 선수는 지난 여름 태안 해수욕장 파도에 휩쓸린 시민을 구하기 위해 주저없이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자의 가족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따뜻한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다.

소프트테니스부의 김백수 감독은 11월 소프트테니스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어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됐다.

유도부 선수들은 2023년 유도 스토브리그에서 꿈나무 선수들에게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며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지난 12월 1,180만원의 지원금을 순천시유도회에 전달하며 지역인재 육성과 체육발전에 힘을 보탰다.

유도부 전지훈련(용인대)(왼쪽부터 양서우, 김지정, 박다솔, 김양호 선수)

전국유도대회 참가(왼쪽부터 김양호,김지정,양서우,박다솔,심상진,문선귀)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출전과 훈련에 제약을 받았던 지난 3년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각종 전국대회에서 맹활약하며 순천시를 널리 알린 19명의 감독과 선수들은 전국을 넘어 국제무대에 오르기 위해 지금도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시는 어려서부터 꿈을 향해 달려온 선수들의 땀과 눈물이 더 넓은 무대에서 빛날 수 있도록 2024년도에도 적극 응원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군 노인복지관 주차장 준공…주차 문제 해소 기대

이용 어르신들의 편리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

보성군은 5일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보성군 노인복지관 주차장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성군 노인복지관은 지난 2021년부터 인근 건물 및 토지 7필지 매입(2억 7,800만 원)을 시작으로, 건물 철거(4,400만 원), 포장(1억 1,600만 원)까지 총 사업비 4억 380만 원을 투입해 25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번 주차 공간 확보로 보성군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소방도로가 확보돼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용 어르신은 "컴퓨터를 가르쳐 주고, 밥도 주는 노인복지관을 자주 가고 싶으나,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거리였는데 이렇게 주차장이 생기니 너무 좋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성군은 2023년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성군 노인복지관 대강당 공간 분리, 접이식 문 설치, 노후된 출입문 및 방화문 교체 등을 추진해 이용 어르신뿐만 아니라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에도 힘썼다.

보성=김덕순 기자

고흥군, 2024년 농업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모집

고흥군은 농업 신기술보급과 농업인들의 영농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농업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지난 4일부터 26일까지 각 읍·면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2024년 시범사업은 벼농사, 원예, 축산 등 총 6개 분야 35개 사업 57개소에 34여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 자격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영농을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단체이다.

신청서 접수 후 현지 심사와 영농의욕과 새 기술 수용 능력 등을 종합평가하고,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올해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농업경쟁력 향상과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신기술 투입과 과학영농 실천으로 고흥 농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업목록 및 내용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군정소식/고흥소식/공지사항)과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여수시, 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발족

2025년까지 2년간 활동…전국 각 분야 전문가 등 15명 구성

여수시가 지난 4일 오후 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을 본격화했다.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는 김종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전국 단위의 공모와 추천을 통해 미술·전시운영·건축 등 전문가 12명을 포함 총 15명으로 구성,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미술관 건립추진 방향, 설계·용역 및 시공 등 건립에 관한 사항, 미술관의 전시·공간계획 및 전시공사 등에 관한 사항, 미술관 개관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GS칼텍스 예울마루 7층 접견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시는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원회 운영 및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기 부시장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시립미술관이 남도예술의 랜드마크 시설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립 시작단계부터 세심한 계획 수립과 운영을 목표로 추진중"이라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